

PA-101

충북지역 전두유 가공 적합 콩 품종별 생육특성 및 가공특성

문혜림^{1*}, 이재웅¹, 김익제¹, 홍성택¹, 성정숙²

¹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²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발작물개발과

[서론]

충북지역의 콩 생산량은 16,000톤으로 전국 58,500톤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2019) 전국 3위의 해당하는 콩 재배지역이다. 하지만 충북지역은 일반콩 재배품종이 '대원콩'에 집중되어 있고, 단일 품종의 연속재배와 해마다 발생하는 이상 기후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여 지속적인 수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충북의 기후특성 및 전두유용 가공특성에 알맞은 콩 품종을 선발하고 고품질 콩의 가공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년~2019년 2년에 걸쳐 대원, 대찬, 선풍, 새단백, 미소, 대풍2호 6개의 품종의 생육특성 및 수량을 조사했으며, 각 품종의 원료곡 40kg 투입 시 전두유 수량 및 가공특성을 조사하였다. 파종기는 6월 30일이며, 재식거리는 휴폭 90cm, 주간 30cm,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재배환경과, 경장, 분지수, 착협고, 협수, 수량 등 품종특성, 전두유 수량, 식미평가(관능), 소비자 기호도 등 가공특성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성숙기는 새단백콩이 10월 26일로 가장 빨랐고, 대찬콩, 미소콩, 대풍2호, 대원콩 순이었으며 선풍콩은 11월 10일로 가장 늦었다. 협수는 선풍콩이 주당 69개로 대원콩과 같았고 나머지 품종은 적었다. 백립중은 미소콩이 28.0g로 가장 높았고, 대찬콩 26.6g, 선풍콩 25.7g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수량은 대찬콩 352kg/10a, 선풍콩 388kg/10a로, 대원콩 대비 각각 28%, 41% 증수되었다.

콩 품종별 전두유 수량은 대원콩, 선풍콩, 새단백콩, 대풍2호 품종이 290L로 가장 높았으며, 관능평가 시 고소한 맛과 비린맛은 품종별 차이가 별로 없었던 반면, 외관과 전반적인 기호도는 선풍콩과 새단백콩이 우수하였다.

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풍콩이 가장 수량이 높고 전두유 가공에 적합했으며 충북지역 콩 가공적성 우수 품종으로 선발하고 지역 맞춤형 콩 원료곡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337802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주저자: Tel. 043-220-5562, E-mail. mosg60@korea.kr